



◇돈수스님이 토굴 위 산간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 안동 천등산 토굴수행 4년 돈수스님을 찾아서 “무문관은 없어... 처처가 도량”

종단소식

방송소식

목탁

정성운

불교의식

한글화

김원우

안동 천등산 지조암 옆 토굴에서 생활하는 돈수스님은 1968년 15세에 해인사로 출가하여 서예 그림 가람 법공에 능통하며 절구통수좌로 정평나 있는 스님이다.

지난 9년 봄부터 4년간 출입문 없이 음식물을 공간만 남겨둔 토굴을 지어 '무문관'생활을 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된장과 생쌀 한 종지로 생활했다. '쌀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지내고 사형 동승스님과 악조한 후 고행을 감수하며 치열한 수행하게 했다. 그러던 스님은 지난해 봄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토굴이 무너지면서 무문관에서 나왔다. 대신 그 자리에 4층남짓한 토굴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 토굴에 가까이 가 넘겨보니 잡념을 자르듯 돈수스님이 커다란 칼로 단근을 함차게 썰고 있다. "돈수스님이세요" 스님은 말이 없다.

잠시뒤 스님은 "공양 접이든 들어오지요"라고 말한다. 스님의 저녁공양상에는 수제비와

### 태고종 총무원 행정 전산화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혜초)은 최근 사회부 산하에 전산팀 '이빛'을 신설하고 종단에 맞는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총무원 행정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로 총무원청사의 전산화를 추진중인 태고종은 지난 4일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6월까지 랜설치 등 총무원 행정 전산화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이어 9월까지 지방총무원에 컴퓨터설치를 완료하고 서울과 직통으로 랜을 설치하기로 했다.

### 상월조사 열반 22주 추모제

천태종(총무원장 운역)은 12일 오전 11시 총부산 구인사 설법보전 대강당에서 종단의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열반22주기 추모대회를 봉행한다.

### '동국TV불교아카데미' 개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와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운)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원장 정병조) 교육과정의 하나로 불교텔레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동국TV 불교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지난 5일 가졌다.

동국TV 불교아카데미는 불교TV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통신 교육을 통해 불교교육의 대중화를 꾀하고 불교사상 전파의 전문인인 포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불교종교와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의 명찰' 등 비디오로

불교TV 영상사업단이 '한국의 명찰'과 '다큐멘터리 영상 천수경' 등 두편의 비디오교과물을 제작 출시했다.

'한국의 명찰'은 그동안 불교TV의 주요프로그램으로 50회에 걸쳐 방영한 것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의 작품과 완성도가 높은 20편을 엄선해 제작한 것.

'다큐멘터리 영상 천수경'은 더불어 사는 삶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보살행임을 영상화 통해 중생에게 설교하고 있다.

### 영화 '유리' 부분삭제 개봉

영화 '유리'(감독 양윤호)시사회가 지난 5월31일 불교계 스님과 불자, 기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 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사회 결과 조계종 법륜을 입은 정면, 촛불의 살인장면, 유리와 누이의 정사장면 등 5분가량이 삭제돼서 지난 8일부터 서울 롯데호텔극장, 동승아트센터에서 개봉됐다.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전주 -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5) 133-2800, 0303 32-0652, 0072

### 틈틈히 산 개간... 서화에 능통 '절구통 수좌'

산을 개간하고 있었다. 지난해 개간했다는 1백 50여명 남짓의 땅에서 호박 배추 상추등이 자라고 있었다.

스님과 산책을 하며 토굴을 내렸었다. 스님은 "불교인들은

### 강원도 영월 산간오지마을 어린이 25명이 63빌딩을 견학했다.

해운사와 신도회가 마련해준 환영회에서 정담스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얽힌 법공양 이야기'를 재미있게 법문으로 들려주었다.

김원우 기자

### "세상 전문 넓은 서울나들이"

리분교와 운학리분교 학부모 10여명과 25명의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63빌딩 견학행사를 마련한 것.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서울에 처음와 본다는 어린이가 대부분이어서 도회지 견학열기를 한층 더했

### 불교의 대중화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불교의식의 한글화이다.

이이 용성스님의 한글불경 편찬에 이어 운허스님이 초대 동국대경원장을 역임하며 한글대장경을 발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앞선 스님들의 해인과 노고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법회현장에서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요원하다.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사암연합회가 주최한 호국영원을 위한 기원대법회, 식순에 따라 법성계를 봉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주최측은 친절하게 팜플렛에 삼귀의와 반야심경 찬불가 사용서원 찬불가를 우리말로 옮겨놓았으나 한자의 토(土)만 달아놓아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음김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가장 진보된 교리 속에서 가장 아둔하게 살고 있다"며 "이 시대 가장 선진적인 인간윤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불자들에게 책임윤리를 가져야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금 알이 끝없이 쏟아져도 만족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는 법구경 경구를 인용하며 "불교도 문화시대에 걸맞게 문화적 육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로 변화하여 중생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지구를 스쳐가는 바람 일 뿐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수행하라"며 '이 원대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준다.

김원우 기자



◇강원도 영월 산간오지마을의 어린이 25명이 63빌딩을 견학했다.

과자 범요집 초심자귀의범 오계수행법등을 선물하자 금새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두손 모아 합장을 했다. 학생대표인 김진형(두산리분교 6년)어린이는 "말로만 듣던 63빌딩을 견학하니 기분이 좋다"며 "우리들을 초청해 준 스님과 신도회분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시청의 한 직원은 "매년 큰 불교행사에 참석하지만 의식은 물론 의식문이 낯설어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대중화가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면 불교의식의 한글화와 함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찰을 벗어난 곳에서 봉행되는 모든 불교 행사는 포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김원우



◇태국 최대의 축제 '베사이크 데이' 법회장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매년 음력 4월 보름에 부처님 탄생·출가·최초 설법·열반일을 묶어 베사이크 데일로 정하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인다. 지난 5월31일 태국의 베사이크 데이 법회를 주관한 박동기 씨(WFB 한국본부회장)의 참가기를 실는다. <편집자 주>

### 태국 '베사이크 데이' 행사 참가기

나자 법문이 시작되었고 (약 20분), 법문이 끝나자 단상의 스님들은 승경을 하였다. 11시가 되자 스님들은 대중공양 장소로 모두 모셔졌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공양이 시작되었다. 공양이 끝나자 미리 준비한 일일종교학과 상비약 리고 법문을 듣고 불우한 이 이 든 주머니가 각각 스님들

### "법문듣고 이웃돌보는 국경일"

음력 4월보름 곳곳서 스님공양·자비실천

뜻을 돌보는 날이다. 마치 우리의 부처님오신날처럼 모든 매스컴이 이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날 WFB 본부의 베사이크 데이 행사는 태국에서 유학중인 8개국의 스님들 120여명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불단 아래에는 약 300여명의 재가 신자들이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삼귀의례와 오계를 다같이 합장하여 염송하는 사이 불단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환율이 좌장의 스님들까지 차례로 이어져 끝까지 돌아갔다. 아마도 일일제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인상이었다. 세번 반복하는 오계송이 끝

생성된 법어, 생생한 불교교리를 간편할 수 있는 기법!!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런만 볼까 여러모로 참 매력적, 수평적, 정감있는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합본집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 ▶ 제59호 (95.12.27)  
▶ 가격: 30,000원 (방송비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성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계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령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 오령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령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 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 만성질환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지메증, 불면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 서술상담

장소: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상담일자: 매주 금,토 (2일간)  
상담전화: (02) 3401 - 3259

### 부산상담

장소: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행)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행)  
부산 상담일자: 월~수 4일간  
상담전화: (051) 465-5100, 467-5200